

에라스무스와 반종교개혁주의*

이만희

단독/한국외국어대학교

Lee, Man-hee(2008), Erasmo y el contrarreformismo, *Estudios Hispánicos*,
46, 153-170.

La mayoría de los estudios sobre Desiderio Erasmo(1466-1536) se han enfocado en sus primeros libros que contienen elementos reformistas, destacando las relaciones con Martín Lutero. Esto significa que no hay suficientes investigaciones sobre sus obras escritas después de romper las colaboraciones con el reformista alemán. Por esta razón, nuestro trabajo trata sobre su libro *De praeparatione ad mortem*(1534), que fue publicado dos años antes de la muerte del humanista de Rotterdam. La obra pertenece al género "arte de morir" que empezó a aparecer en la Edad Media y luego tuvo un gran éxito de publicación durante la época contrarreformista. Nuestro estudio se concentra en la postura de Erasmo, quien dejó de ser amigo de los protestantes tras las disputas entabladas por su *De libero arbitrio*(1524) con Lutero. En su libro aún se puede rastrear la visión reformista, pero ésta tiene un tono suave y dócil. En su lugar, se puede observar su postura evidentemente contrarreformista a lo largo de toda la obra y su defensa clara de la Iglesia católica en casi todas las polémicas teológicas de su época. Lo decisivo es que el autor toma un género tradicional como es el "arte de morir" como tema de una de sus últimas obras, el cual se convierte en el arma más eficaz contra la Reforma. Por esta causa, a Erasmo se le puede llamar 'el precursor de la Contrarreforma'.

[Erasmo/ contrarreformismo/ Cultura renacentista española;
에라스무스/ 반종교개혁주의/ 스페인 르네상스 문화]

* 이 논문은 2007년 경희대학교에서 열린 한국스페인어문화회 겨울학술대회에서 발표한 것을 수정·보완한 것임.

1. 들어가는 말

지금까지 데시데리우스 에라스무스(Desiderius Erasmus, 1466?-1536)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들은 종교개혁 초기에 마틴 루터와 사상적 동지로서 교분을 나누었던 점을 부각하면서 개혁적 성향이짙었던 그의 생애 전반기의 저작들에 집중되었다. 예컨대 1500년에 출판된『격언집 Adagia』, 1503년에 초판이 나온『기독교도 병사 제요 Enchiridion militis christiani』, 1511년에 발표된『광우예찬 Encomium Moriae』, 1518년의『대화집 Colloquia』과 같은 작품이 그것들이다. 이러한 현상은 에라스무스가 루터와 결별한 이후인 생애 후반기의 작품들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연구의 불균형은 로테르담의 인문주의자를 총체적인 차원에서 이해하는 데 장애가 되어왔다.

에라스무스가 1524년에『자유의지론 De libero arbitrio』으로 루터의 신학적 입장에 대해 반대하면서부터 독일의 신학자와 가톨릭교회에 대한 견해 차이가 본격화된다. 에라스무스의 공격에 대해 루터는 이듬해에『노예의지론 De servo arbitrio』으로 반론을 펼쳤고, 로테르담의 인문주의자는 다시 1526년부터 1527년에 걸쳐『루터의 노예의지론 반박 Hyperaspistes』으로 재반론을 시도하면서 두 사람의 관계는 완전히 단절된다. 신은 모든 이성과 의지를 초월하기 때문에 인간의 구원은 오직 기도로 얻은 신의 은총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는 루터의 견해에 대해, 에라스무스는 이성과 의지 속에서만 신과 대면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자유의지를 변호하여 두 사람의 논쟁은 점점은 찾지 못했던 것이다. 이러한 의지의 자유와 부자유에 관한 논쟁은 급진적인 교회 비판에서 중립적인 위치에 놓였던 에라스무스로 하여금 기존의 교회에 대한 적극적인 옹호론자로 선회하게 만들었다.

본 연구는 이 시기, 즉 로마 교황청으로부터 파문장을 받은 루터와 결별한 이후 출판된 에라스무스의 작품 중에서 임종 이태 전에 출판한『죽음을 위한 준비 De præparatione ad mortem』(1534)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 작품은 중세 이후의 '좋은 죽음을 맞이하는 기술'이란 장르에 속하는데, 이 장르의 작품들은 스페인 반종교개혁기 때 출판의 블을 형성하게 된다. 본 논문은 장르적으로 반종교개혁기의 정신을 가장 잘 대변하게 될 이 작품을 루터와의 논쟁 이후 생애 최후의 순간에 집필한 에라스무스의 선택에 주목한다. 그의 작품에는 비록 완화되고 축소되었지만 여전히 루터와 공유했던 초기의 개혁적이고 비판적인 시각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작품 전반적으로는 당대의 논쟁에서 매우 보수적이고 전통적인 입장은 보이고 있어서 가톨릭교회로의 지향을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보여준다.

본 논문은 이 작품 속에서, 한 세대 후에 본격적으로 전개될 반종교개혁 정신의 선구로서의 에라스무스의 태도를 조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반종교개혁의 정신이 집대성되어 있는 트렌토 공의회의 결정들과 에라스무스의 변화된 입장을 비교하면서 한 세대 앞서 트렌토의 정신을 구현한 에라스무스의 면모를 고찰하고자 한다.

2. 루터와의 결별

합스부르크 왕가의 영토였던 네덜란드에서 태어난 에라스무스는 그의 작품이 금서목록에 들어가기 전까지 많은 스페인 인문주의자들에게 영향을 주었다. '자각한 최초의 유럽인'으로 불리는 에라스무스는 당대의 선각자로서 경직화되고 형식화되어 생명력을 잃은 중세 그리스도교에 대하여 신랄한 비판을 가한다. 『광우예찬』과 같은 작품을 통하여 당시 교회에 만연했던 미신과 바리새주의, 인간의 탐욕 등에 대해 가차 없는 풍자와 조롱을 쏟아내었다.

1517년부터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운동이 격화하는데, 에라스무스는 가톨릭교회에 대하여 비판은 하였지만, 정면으로 반대하는 것은 좋아하지 않았다. 따라서 급진적인 루터의 노선을 계속 동의할 수 없었으며, 결국 그와 결별을 선언하게 된다. 만년의 에라스무스는 그에게서 비판을 받은 가톨릭교회 내의 보수주의자들과 프로테스탄트 진영의 급진주의자들 사이에 끼어 곤경에 처하였다.

에라스무스가 후기에 들어 종교개혁 진영을 비판한 이유는 이들이 그때까지 적용되던 모든 종교적인 전통들을 완전히 폐기시키려 했으며, 또 한편으로는 종교개혁의 반대자들이 이로 인해 자신들이 취해오던 점진적인 개혁 작업을 중단하려는 경향으로 기울어졌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에라스무스는 극단을 배제하고, 중도의 길을 걷도록 판대함을 호소했는데, 1533년 『교회의 일치 Liber de concordia ecclesiae concordia』에서 이 점을 상세히 논했다.

루터의 이름이 유럽 전역으로 알려지기 오래전부터 에라스무스는 시대가 요구하는 개혁자로서 주목을 받아 왔었다. 그는 루터를 비롯한 많은 개혁주의자들과 서신을 주고받았으며, 이 활동의 대부분은 유럽 전역에서 교회의 개혁을 촉진시키는데 기여하였다. 그는 유럽의 여러 궁중으로부터 추종자들과 친양자들을 얻었으며, 그 가운데는 네덜란드와 스페인의 국왕이자 신성로마제국의 황제였던 카를로스 5세도 있었다. 황제는 에라스무스를 은급을 받는 제국의 고문으로 기용하기까지 하였다.¹⁾

한 동안 스페인의 교회가 에라스무스적인 노선으로 교회를 맨 먼저 개혁하는 것처럼 보였고, 영국과 프랑스, 나바라도 뒤따를 듯 했다. 바로 그 때에 독일에서 루터파의 운동이 진전되고 가톨릭 지도자들이 이 운동이 확산되는 것을 저지하려고 하자, 사람들은 이 두 운동을 비교하면서 정확하게 정의를 내릴 필요가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²⁾

프랑스, 독일, 영국에서는 양쪽의 노선이 확연하게 나타남으로써 급기야 종교전쟁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완화는 불가능하게 되었고, 에라스무스는 기질뿐만 아니라 소신에 있어서도 온건한 입장이었으므로 점점 더 곤란한 처지에 몰리게 되었

1) Roland H. Bainton(1998), 『에라스무스』, 9.

2) Justo L. González(2002), 『기독교 사상사 III』, 40.

다. 무엇보다 에라스무스의 평화적인 기질은 루터의 호전성을 결코 좋아할 수 없었다. 얼마 동안이나마 에라스무스는 루터의 공개적인 공격을 자제하면서, 프로테스탄트 진영의 성공은 신이 교회의 부패를 심판하면서 대대적인 의과수술로 치료한다고 인정하였다.³⁾

그렇지만 일련의 사건에 의해서 자신의 전략을 바꿀 수밖에 되었다. 그는 루터파라는 비난을 받기 위해 이르렀으며 개혁주의자들은 그의 글들과 명성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지지기반으로 삼았다. 영국의 헨리 8세, 교황 아드리안 6세, 그리고 많은 친구들과 반대자들이 입장은 명확히 밝히라고 촉구하였다.⁴⁾

마침내 그는 루터를 공격하기로 결심하였는데, 그가 루터와 논쟁하고자 한 주제는 헨리 8세가 제안했던 '자유의지'에 관한 문제였다. 루터는 이미 1518년 하이델베르크 논쟁에서 "타락 이후 자유의지는 비록 그것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한다고 해도 결국 죽음에 이르는 죄를 범하게 된다"고 단언했었다. 1520년의 『그리스도인의 자유』에서 루터는 선행이 하나님에게 인정을 받으려는 의도로 행하여 진다면 '저주받을 죄'라고 선언하였다.⁵⁾ 에라스무스는 자유의지에 있어서 루터와 분명하면서도 심각하게 이견을 내비쳤기 때문에 『자유의지론』이라는 논문을 쓰기로 작정했다. 루터는 이에 맞서서 『노예의지론』을 써서 신랄하게 공박하였다.⁶⁾

에라스무스는 프로테스탄트 진영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졌으며 생의 마지막에 이르러서는 자신이 일찍이 정죄하기까지 했던 가톨릭교회의 많은 사항들을 용납하기에 이르렀다.⁷⁾ 에라스무스 연구자인 롤란드 베인턴(Roland H. Bainton)에 따르면, 에라스무스는 노년에 『광우예찬』을 출판했던 것을 후회했다고 한다.⁸⁾

후스토 L. 곤살레스(Justo L. González)는 『기독교 사상사』 제 3권에서 에라스무스의 이러한 입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그가 가톨릭에 남아 있었던 것은 가톨릭교회의 모든 부패에도 불구하고 또 한 자신이 이러한 부패를 끊임없이 비난하였으면서도 가톨릭교회에 남아 있음으로써 자신은 가장 좋은 신자가 될 수 있다고 느꼈으며, 가톨릭교회로부터 기독교의 참된 개혁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했기 때문이다.⁹⁾

3) Ibid., 41.

4) Ibid.

5) Roland H. Bainton, op. cit., 236쪽을 참조하시오.

6) Justo L. González, op. cit., 41.

7) Ibid., 42.

8) Roland H. Bainton, op. cit., 9.

9) Justo L. González, op. cit., 37.

3. 트렌토 공의회의 결정들의 예고

로테르담의 인문주의자는 머지않은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죽음을 위한 준비』를 출판하게 되는데 이 작품은 출판 이듬해에 스페인어로 번역되어 스페인 지성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에라스무스는 만년에 집필한 이 작품에서 그의 초반기 작품들에서 볼 수 있는 신랄하고 공격적인 어조의 종교개혁적 입장 대신, 순화되고 온건한 전통주의자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이 작품은 마틴 루터와 공조했던 급진적인 개혁주의에서 탈피하여 기존의 가톨릭교회 속에서의 개선을 추구한 작가의 종교적 입장이 잘 표현된 작품이다. 이는 곧 온건한 개혁주의 노선과 곧 도래할 반종교개혁주의 사이의 절충과 조화, 타협을 제시했던 에라스무스의 태도가 잘 투영된 작품이라 하겠다.

프로테스탄트의 도전에 직면하여 소집된 트렌토 공의회(1545-1563)가 가톨릭 자체 개혁을 표방하며 제시한 결정들은 16세기 후반과 17세기 동안 반종교개혁주의의 확산에 박차를 가한다. '죽음을 준비하라'는 가톨릭 교훈주의 산문은 스페인 바로크 시대와 맞물려 돌아가는 트렌토 가톨릭 시대를 맞이하여 봄을 형성하게 된다. 그 대표적인 이유는 이 장르의 작품들이 트렌토 공의회의 결정들을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수단이었기 때문이다. 에라스무스의 작품은 '죽음'에 대한 스페인의 정신사에서 '제 2의 중세'라는 스페인 바로크 시기가 시작되기 한 세대 전에 등장하여 전통주의자요 반종교개혁의 선구라 할 만한 입장을 칙설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에라스무스의 『죽음을 위한 준비』는 그가 죽기 두 해 전인 1534년에 출판된다. 작품이 출판된 지 1년 만에 두 개의 스페인어 번역 작품이 나왔는데, 하나는 부르고스에서 익명의 저자가 『좋은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 필요한 준비를 위한 책 Libro del aparejo que se deue hazer para bien morir』이라는 제목으로 출판하였으며, 또 다른 하나는 발렌시아에서 『죽음을 위한 준비 Apercibimiento de la muerte』라는 이름으로 간디아의 수도승인 베르나르도 베레스 데 친촌(Bernardo Pérez Chichón)에 의해 번역되었다. 발렌시아의 번역본은 이후 세 개의 재판본이 더 나왔으며, 1549년에는 암베레스에서 『좋은 죽음을 위한 준비 Aparejo de bien morir』란 이름의 새 판본이 출판되었고, 1555년에는 같은 곳에서 『좋은 죽음을 위한 준비 Preparación y aparejo para bien morir』란 제목으로 헛빛을 보게 된다.

에라스무스의 작품은 스페인 사람들에게 죽음의 테마에 대한 강박관념을 갖게 만들 정도로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 그의 삶과 죽음에 대한 시각은 '좋은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 좋은 삶을 살아야 한다'는 메시지에 잘 드러나 있다. 살면서 죽음에 대한 연습과 준비를 하는 것이야말로 참된 삶을 위한 연습이라는 것이다. 이 책에서 그는 중세 때의 '아르스 모리엔디 Ars moriendi'가 가졌던 죽음에 대한 태도에 변화를 가져온다. 즉 '잘 죽는 것으로 충분하다'라는 중세인들의 일반적인 신념과는 달리 '잘 죽기 위해서 잘 사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시선 이동을 보

여주고 있다. 즉 중세 동안 '눈물의 계곡'으로 치부되면서 죽음 이후 천국으로 가는 길목 정도로 인식되었던 현세에 대해서 에라스무스는 르네상스적 궁정과 낙관주의를 드러낸다. 물론 이 작품에서도 에라스무스는 비록 혼저히 완화된 어조이기는 하지만 중세 기독교가 내포하고 있었던 미신적인 요소들과 형식주의를 비판하고 내적 기독교에 대한 주장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그의 비전이 '잘 죽기만 하면 된다'는 중세적인 관념을 극복한 것이기는 하지만, 죽음의 순간에 모든 것이 결정 난다는 중세적 사고에는 변함이 없다. 에라스무스의 『죽음을 위한 준비』가 출판된 것은 마틴 루터가 로마교황청으로부터 파문당하고, 에라스무스 역시 그와의 동지 관계를 청산하고 결별한 이후이다. 이 작품이 출판되었을 때는 루터와의 논쟁이 있고 난 후 10년여의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그가 급진적인 종교개혁주의자들과 거리를 두고 있다는 것이 널리 알려진 시점이었다. 그러나 1535년은 스페인 에라스무스주의자들의 지도자였던 그리스어 학자 후안 데 베르가라(Juan de Bergara)가 가톨릭 전통주의자들로부터 광명파이자 루터교도로 고발당하여 실형을 선고받고 수도원에 유폐당한 해였다.¹⁰⁾

이런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에라스무스의 저술이 스페인에서 번역되어 출판되었다는 것은 이 작품이 담고 있는 가톨릭교회의 전통적인 요소가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게다가 번역본 중 하나는 당시 가톨릭교회 성직자가 번역자로서 자신의 이름을 숨기지 않고 출판한 것을 볼 때, 이 작품은 기존의 에라스무스의 서적과는 달리 가톨릭교회에 대한 비판적이고 개혁적인 어조가 크게 회색되었을 뿐만 아니라, 16세기 하반기부터 시작될 가톨릭교회의 반종교개혁주의 정서에 부합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결국 당시 마틴 루터와 같은 종교개혁주의자들과는 달리, 에라스무스의 작품이 죽음 이후 내세의 공간으로 연옥을 인정하고, 중세 때의 관념인 '임종의 순간에 영혼의 구원이 결정 난다'는 전통적인 주제를 다루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의 작품이 반종교개혁기의 대표적인 종교문학으로 자리하게 될 '좋은 죽음을 준비하는 기술' 계열의 작품으로 분류되어 전통적인 가톨릭주의와 크게 충돌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국 에라스무스의 생애 말년의 작품은 그의 초기 작품들이 가졌던 종교개혁적인 정신에서 멀어지고, 중세의 생사관을 발전적으로 계승한 반종교개혁주의의 입장 쪽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한때 에라스무스의 친구였던 카라파(Carrappa)가 1559년에 교황이 되어 바오로 4세로 즉위했을 때, 에라스무스의 모든 저술들을 금서목록에 포함시켰다. 그러나 이후 트렌토 공의회는 이를 완화하여 불온한 부분들을 삭제한 판본들의 출판을 허용하게 된다.¹¹⁾ 이것은 에라스무스의 초기 작품의 비판적인 표현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내용은 트렌토 공의회가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이었다는 증거가 된다.

10) John H. Elliott(2000), 『스페인 제국사(1469-1716)』, 239쪽을 참조하시오.

11) Roland H. Bainton, op. cit., 347.

이제 당대 종교 개혁 진영과 팽팽한 공방을 벌였던 주요 논쟁점에 대하여 에라스무스가 『죽음을 위한 준비』에서 취한 태도를 고찰하기로 한다.

3.1. 성화상

트렌토 공의회 제 25차 회기는 성인들에게 바치는 청원기도와 성인과 성인의 유해 공경, 그리고 성화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다.

본 거룩한 공의회는 모든 주교들과 영혼을 돌보며 가르치는 직무를 갖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사도로부터 이어오면서 그리스도교 초기 시대부터 전수되어온 가톨릭교회의 정신과 거룩한 교부들의 의견과 거룩한 공의회들의 교령들에 따라 성인들의 전구와 그들에게 바치는 청원기도와 성인 유해 공경과 성화상의 올바른 사용에 관하여 주의 깊게 신자들을 교육할 것을 명하는 바이다.¹²⁾

공의회는 성화상에 대한 개혁주의자들의 입장을 반박하면서, 성직자들로 하여금 신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성화상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다음과 같이 계도하고 있다.

[...] 그리스도와 하느님의 어머니 동정 마리아와 그 밖의 성인들의 성화들은 성당 안에 모셔서 보존해야 한다. 성화상을 공경한다는 것은 마치 미신자들이 예전에 그 성화들에 희망을 두면서 그러했던 것처럼 그 성화상들 안에 신성이 존재한다든가 혹은 그 자체를 신뢰하면서 성화상에게 무엇인가를 청해야 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성화상들이 표현하고 있는 바를 공경하는 것이다. [...] 주교들은 그림들과 그 밖의 다른 방법으로 우리 구원의 신비에 관한 이야기들을 묘사하는 것들을 통하여 백성이 신앙 안에 교육되고 굳건해지며 신앙의 주제들을 기억하고 묵상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법들을 받을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할 것이다. 또한 주교들은 모든 성화상들로부터 참된 신앙의 결실을 얻어내도록 그것들을 설명해야 할 것이다.¹³⁾

공의회는 이러한 가톨릭교회의 결정에 반대하는 자에 대하여 파문받아 마땅하다고 단호하게 선언한다.

만일 누군가가 이 교령에 반대되는 내용을 믿거나 가르친다면 그는 파문받아야 한다.¹⁴⁾

12) G. Alberigo(ed.)(2000), 『보편 공의회 문헌집 제3권 - 트렌토 공의회 · 제1차 바티칸 공의회』, 774.

13) Ibid., 775.

이처럼 종교개혁 진영과 함께 대립된 이슈 중의 하나인 성화상 사용 문제에 대해, 에라스무스는 가톨릭교회의 입장은 전적으로 저지하고 있다. 그의 『죽음을 위한 준비』 후반부인 '절망'의 죄를 다루는 대목에서 "임종을 맞이하는 자에게 희망을 갖게 하는 죄고의 도구가 십자가상을 보여주는 것"(281)¹⁵⁾이라고 말한다. 이것이 많은 경우 환자를 감동시킨다는 것이다.

에라스무스는 이에 더해 성자들을 그린 그림들의 효능에 대해 언급한다. 절망에 빠진 병자에게는 특별히 동일한 문제를 겪고 있던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가 자비를 베풀어 준 성자의 그림이 큰 역할을 한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창녀로 알려졌다가 용서 받은 막달라 마리아의 초상이나, 그리스도를 부인했다가 나중에 눈물을 흘리는 성 베드로의 초상이 특별한 역할을 한다고 주장한다.(281)

3.2. 연옥

트伦토 공의회 제 25차 회기는 '연옥에 관한 교령'을 다음과 같이 선언하고 있다.

가톨릭교회는 [...] 성경과 교부들의 오랜 전통에 근거해서, 여러 거룩한 공의회들과 최근에 이르러서는 본 거룩한 보편 공의회를 통하여 연옥이 존재하고 그곳에 있는 영혼들은 신자들의 기도를 통하여, 특별히 거룩한 미사성제를 통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왔다. 따라서 본 거룩한 공의회는 주교들에게 거룩한 교부들과 공의회들을 통하여 전수되어온 연옥에 관한 전전한 교리가 어디서든지 믿어지고 보존되며 가르쳐지고 선포되도록 정성을 다하여 감독할 것을 명하는 바이다.¹⁶⁾

에라스무스는 당대 뜨거운 논쟁 중의 하나였던 연옥에 관한 교리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는 『죽음을 위한 준비』에서 질병과 가난, 노쇠와 고아됨, 환난과 같은 현세에 겪는 고통은 악과 같은 것으로 보면서, 이를 연옥과 연결시켜 설명하고 있다.

(현세의 고통은) 연옥에서 정화해야만 할 것들을 정화하기 위한 악과 같은 것입니다.(240)

에라스무스는 "신은 내세에서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서 인간

14) Ibid.

15) 본 논문에서 사용하는 텍스트는 Desiderio Erasmo(2000), *Preparación y aparejo para bien morir*(traducción de Bernardo Pérez de Chinchón). Madrid: Fundación Universitaria Española이며, 이하 텍스트 인용은 본문에서 페이지로만 표시한다.

16) G. Alberigo(ed.), op. cit., 774.

의 상처와 고통을 부드려우면서도 짧은 기간 동안 치유하면서 인간을 칭계한다”(240)고 주장한다.

임종을 준비하는 사람이 연옥에 대하여 두려움을 가지는 경우에 대해 에라스무스가 제시하는 해결책은 종교개혁 진영에 대한 분명한 선긋기로 볼 수 있다.

가장 좋고 유용한 방법은 제가 보기에 선한 사람들이 드리는 미사와 경건한 기도이고, 죄를 없애고 연옥의 시간을 줄이는 현금입니다.(289)

‘연보함에 동전이 떨랑하고 떨어지자마자 영혼은 연옥에서 천국으로 튀어 오른다’고 설교한 도미니크 교단 수도사 테첼(Johann Tetzel, 1465~1519)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반박한 것이 마틴 루터라면, 에라스무스의 이 진술은 루터의 주장을 문구 그대로 공박한 셈이다.

트렌토 공의회는 1563년 12월 4일에 열렸던 제 25차 회기에서 종교개혁 진영의 공격 대상이 되었던 ‘대사(大赦)’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 대사를 열기 위해 자행되었고 그리스도 백성에게 끝없는 남용의 원인이 되었던 모든 부적절한 금전의 유통을 완전히 폐지한다.¹⁷⁾

그러나 ‘연옥에 관한 교령’을 결정하면서 연옥에 있는 망자들을 위한 여러 가지 행위들에 대해서는 옹호하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주교들은 살아 있는 신자들이 죽은 신자들을 위하여 예부터 바쳐온 전구, 즉 미사성제, 기도들, 자선 행위와 그 밖의 신심 행위들이 교회의 지침에 따라 정성을 다하여 이루어지도록 돌보아야 할 것이다. 아울러 주교들은 사제들이나 교회의 성직자들 그리고 죽은 이들을 위해 의무를 지고 있는 여타의 사람들로 하여금 유증이나 기타 사유로 기탁된 기금을 목적대로 온전히 성의를 다해 이행하도록 돌보아야 한다.¹⁸⁾

에라스무스는 종교개혁 측이 집중적으로 공격했던 인간의 공로의 측면에 대하여 트렌토 공의회의 결정을 앞당겨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다음은 좋은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죽음에 직면해서보다 평상 시 건강할 때 죄에 대한 고백과 고행을 행하라고 말하며, 현금과 선행에 대하여 강조하는 대목이다.

눈물과 현금과 간구와 기도, 그리고 다른 선행으로 신의 분노를 누그려 놓으시다. 그러할 때 질병의 날에 우리의 죽음은 우리의 삶과 같을 것입니다

17) Ibid., 797.

18) Ibid., 774.

다.(248)

3.3. 유언서 작성

에라스무스는 삶이 죽음에 대한 진지한 준비가 되도록, 건강할 때 미리 유언서를 작성하라고 권한다. 이것은 죽음의 순간에 집중된 구원을 위하여 이 땅에서의 삶을 어느 때라도 준비된 삶으로 만들기 위한 가톨릭교회의 교훈과 상통한다. 에라스무스는 유언서 작성이 좋은 죽음을 맞이하는데 얼마나 유익한지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어떤 사람들은 유언서를 작성하면 어떤 불길한 일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우리들의 육체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사실 유언을 작성하는 이유는 빨리 죽으라는 것이 아니라, 보다 평안하게 죽음을 맞이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248)

에라스무스는 수도원에서 기거하는 수도사들은 이런 부분에서 해방되어 훨씬 자유로운 삶을 사는 반면, 자녀와 형제 또는 법적 상속자들 가진 사람들은 재산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분쟁과 소송이 일어나 혼란스러운 입장을 맞이하게 된다고 주장하면서, 이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248) 에라스무스는 이러한 문제를 피하기 위해 독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조언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건강할 때 유언서를 작성하여 죽음을 앞둔 고통의 순간에 적절하지 않은 걱정으로 자신을 피곤하게 만들지 마십시오.(248)

3.4. 성사

1547년 3월 3일 트렌토 공의회 제 7차 회기에서 성사에 관한 제 1교령에서 '성사 일반에 관한 법규' 1조는 다음과 같이 선언하고 있다.

만일 누가, 새로운 법의 성사를 모두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설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거나, 성사들이 세례, 견진, 성체, 고해, 종부, 신품 그리고 혼인, 즉 일곱 가지보다 많거나 적다고 주장하거나, 혹은 이 일곱 가지 중에 어떤 것은 참된 본연의 성사가 아니라고 주장한다면, 그는 파문받아야 한다.¹⁹⁾

성사에 대한 주장은 종교개혁 진영의 '오직 믿음 Sola fide'에 대한 교리를 반박

19) Ibid., 684.

하면서 신·구교 간의 신학적 입장 차이를 극명하게 노출시켰다. 공의회 동일 회기 제 1교령 4조는 프로테스탄트 측의 '이신득의(以信得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입장을 정리한다.

만일 누가 새로운 법의 성사들은 구원에 필요한 것이 아니라 무의미한 것이고, 이 성사들 없이 혹은 이 성사들을 받을 원의 없이 오직 믿음만으로 인간은 하느님으로부터 의화 은총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면, 그는 파문 받아야 한다.²⁰⁾

에라스무스는 작품에서 성체 배령과 종부성사를 비롯하여 트렌토 가톨릭이 정립한 칠성사를 적극적으로 지지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수난과 함께 그리스도의 신비스러운 몸인 성체를 묵상하는 것이 임종의 순간에 매우 유익하다고 말한다.(256)

트렌토 공의회는 제 13차 회기에서 성체성사에 관한 교령을 결정한다. 여타 성사들에 대하여 성체성사가 가진 상대적인 탁월성을 제시하면서 이를 설명하는 데 많은 페이지를 할애하고 있다. 그 제 1장은 당시 논쟁이 되었던 소위 '화체설'에 대한 가톨릭교회의 입장이 집약되어 있다.

우선 본 거룩한 공의회는 신적이고 거룩한 성체성사 안에서 참하느님이시며 참인간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빵과 포도주가 축성된 후 그 감지할 수 있는 물질들의 형상하에 참으로, 실제로 그리고 실체적으로 계시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단순하게 가르치고 고백하는 바이다.²¹⁾

공의회는 제 4장에서, 축성된 빵과 포도주의 실체 변화에 대해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있다.

우리 구세주 그리스도께서 빵의 형상으로 당신께서 내어 놓으시는 것이 진정으로 당신의 몸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느님의 교회에는 항상 이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 이제 본 거룩한 공의회는 빵과 포도주의 축성과 함께 빵의 전 실체가 우리 주 그리스도의 몸의 실체로, 그리고 포도주의 실체가 그분의 피의 실체로 변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밝히는 바이다.²²⁾

에라스무스는 당시 프로테스탄트 측과의 균열이 있었던 이러한 논점에 대해, 곧 트렌토 공의회에서 공식화하는 입장을 받아들이고 있다. 그는 「죽음을 위한 준

20) Ibid.

21) Ibid., 693.

22) Ibid., 695.

비₂에서 절망을 삼는 악마의 역할을 언급하면서 '이단(hereses)'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281) 사탄이 난해하고 복잡한 질문으로 병자를 공격하는데, 악마의 질문 가운데에는 교회가 베푸는 성사에 대한 것도 포함되어 있다.(282) 당시 성사에 대해 공격했던 프로테스탄트 진영을 생각할 때, 이 역시 에라스무스가 종교개혁 진영에 대해 취한 반감에서 비롯되었다고 하겠다.

즉답이 나올 수 없는 난제를 가지고 공격하는 악마에게 대항하는 환자가 해야 할 대답에 대해 에라스무스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당신은 무엇을 믿소?”
“교회가 믿고 있는 것을 믿소”
“교회가 믿고 있는 것이 무엇이오?”
“내가 믿고 있는 것이요.”
“당신이 믿고 있는 것은 무엇이오?”
“교회가 믿고 있는 것이요.”(283)

에라스무스는 이런 방식의 대답이 병자를 속이려고 하는 악마를 물리치는 데 효과적이라고 설명한다. 그가 의심스럽고 분명하지 않은 신앙의 교리들을 가지고 임종을 준비하고 있는 환자를 공격하는 사단에 대해서 이야기 할 때, 당시 교리 논쟁으로 격화된 종교개혁 진영에 대한 공격 의도가 배어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특히 환자가 사탄을 물리치는 대답의 핵심이 “교회가 믿고 있는 것”(283)이란 데서 당시 가톨릭교회의 교리에 대한 그의 입장이 여실히 드러나 있다.

작품에서 에라스무스는 반복적으로 교회의 권위와 가르침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악마의 공격에 대한 강력한 대응책이라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다. 특별히 축성된 빵의 실체 변화에 대한 공격을 예로 들면서 이에 대한 교회의 믿음을 대답으로 제시하라고 병자를 가르친다.

“어떻게 지극히 작은 빵에 진짜 사람의 몸이 들어갈 수 있단 말이요?” 그
러면 이렇게 대답하십시오: “교회가 믿는 대로요.”(283)

임종의 순간에 전개되는 악마와의 영적 전투를 위해 에라스무스는 성체 배령을 권한다. 이때 “예수의 귀한 몸과 그의 피로 변한 영적 강심제인 빵과 포도주”(290)를 언급하면서 그리스의 성체를 배령하는 데서 오는 유익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성체배령은) 사람의 영혼이 견고하고 강하며 영혼의 원수인 악마에 대하여 무적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290)

에라스무스가 “교회가 믿는 대로”라고 주장한 신념은 트렌토 공의회 제 13차 회기의 ‘지극히 거룩한 성체성사에 관한 법규’에서 그대로 재현된다.

만일 누가 지극히 거룩한 성체성사 안에 그 영혼과 신성과 더불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즉 온전한 그리스도의 전 존재가 참으로, 실제로 그리고 실체적으로 존재하심을 부인하면서, 상징으로서나 형상으로 혹은 그분의 능력만이 그 안에 있다고 주장한다면, 그는 파문 받아야 한다.²³⁾

이외에도 에라스무스는 당대의 논쟁적인 주제에 대해 작품 곳곳에서 반종교개혁주의적 태도를 취한다.『지혜서』를 비롯하여 당시 종교개혁 진영이 거부한 의경, 즉 제 2경전²⁴⁾을 빈번하게 인용하는데,(247) 이는 1546년 4월 8일 트렌토 공의회 제 4차 회기에서, 라틴어 불가타고전본에 실려 있는 성경 목록 전체를 거룩한 정전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파문받아야 한다고 공표하여 제 2경전을 성경에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결정이 난 것이다.²⁵⁾ 인간과 신의 중재자로서의 사제의 역할을 거부하며 만인사제설을 주장한 개혁주의자들에 반해, 에라스무스는 사제를 “신의 대리자(el vicario de Dios)”(256)라고 한 전통적인 교회의 입장을 견지하였다. 무엇보다 자신의 입장은 분명히 하기 위해 에라스무스는 작품에서 자신이 소속한 교회가 ‘가톨릭교회(la iglesia católica)’(226)라는 사실을 분명히 적시하여 종교개혁가들과의 분리를 분명히 하고 있다.

4. 장르적 특성과 반종교개혁

에라스무스가 노년에 『죽음을 위한 준비』란 ‘좋은 죽음을 맞이하는 기술’ 류의 책을 집필했다는 것은 그의 신학적 입장이 반종교개혁 진영으로 결정적으로 기울었다는 증거가 된다. 이 장르의 책은 가톨릭교회의 변증론이자, 반종교개혁 정신을 보급하는 정교한 교리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좋은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좋은 탄생, 즉 구원과 직결된다는 가르침은 중세 이후의 가톨릭교회의 전통적인 가르침이다. 작품의 스페인어 번역자인 베르나르도 뼈레스 데 친촌은 다음과 같이 에라스무스의 저술의 핵심을 요약하고 있다.

이 준비는 좋은 죽음을 위한 준비인데, 그것은 이 책에서 좋은 탄생을 의미합니다.(214)

23) Ibid., 697.

24) 가톨릭교회에서 제 2경전으로 분류하고 있는 책은 토비트, 유딧, 에스델, 지혜서, 집회서, 바룩, 다니엘(세 아이의 노래, 수산나, 벨파 뱀), 마카베오 상, 마카베오 하이다.

25) G. Alberigo(ed.), op. cit., 663-664.

여기서 좋은 탄생이란 죽음 이후에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곧 가톨릭교회의 구원을 일컫는 것이다. 좋은 죽음이 구원과 직결된다는 사상은 가톨릭 신학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트렌토 공의회는 이것을 공식화한다. 에라스무스는 이러한 신학적 입장을 작품 곳곳에서 피력하고 있는데, 좋은 죽음, 즉 병자가 구원을 얻도록 작품이 나열하는 상세한 세칙들은 구원이 결정되는 순간, 즉 죽음의 순간을 성공적으로 통과하기 위한 하위 규정들이다.

트렌토 공의회는 제 6차 회기의 '의회에 관한 교령' 제12장에서 루터가 취했던 예정설에 관한 무분별한 추정을 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그 누구도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동안에 의화한 자는 더는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것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혹은 죄를 지을지라도 확실한 회개가 마치 자신에게 보장되는 것처럼, 자신이 예정된 자들의 수에 포함되어 있다고 확신을 갖는 식으로 신적 예정의 숨겨진 신비에 관해 추정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특별한 계시를 제외하고는, 하느님께서 누구를 선발하셨는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²⁶⁾

이러한 입장은 인생의 여정 중에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았는지 여부에 대해 알 수 없고, 오직 임종의 순간에 구원이 결정된다는 사고의 배경이 된다. 다시 말해 '좋은 죽음을 맞이하기 위한 기술' 류의 작품이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신학적 배경이 된 것이다.

종교개혁 전영에서 영생의 개념을 그리스도를 영접한 순간에 이 땅에서부터 누리는 것으로 설명하는 데 비해, 에라스무스는 분명하게 "죽음이 영생의 문"(220)이라는 개념을 표명하고 있다. 그는 플라톤을 인용하면서 "모든 철학은 죽음에 대한 준비와 다르지 않다"(221)라고 주장하면서, 고대 철학에서 죽음이란 주제가 갖는 중요성과 가톨릭 신학과 연결시키고 있다.

구원에 직결된 죽음에 대한 준비는 갑작스러운 죽음에 대한 종래의 태도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게 만들었다. 중세 이후로 이 장르의 저자들은 예기치 않은 죽음은 준비되지 않은 죽음의 가장 극단적인 사례로 보고 이를 피하라고 했다. 그러나 에라스무스는 『지혜서』 4장 7절을 인용하면서 의인이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하더라도 그 죽음은 좋은 죽음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모든 이들이 갑작스럽고 예기치 못한 죽음을 싫어합니다. 당신은 거리거리 마다 이런 소리를 듣습니다. "주여, 갑작스러운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피하게 하소서." [...] 과연 이러한 모든 죽음이 혐오스러운 것일까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솔로몬은 말하기를 "의인은 제 명을 다하지 못하고 죽더라도 안식을 얻는다"고 하였습니다. 아무리 갑작스럽다고 해도 그때까지의 그

26) Ibid., 676.

사람의 삶이 선하였다면 그 죽음은 나쁜 죽음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 우리를 나쁜 삶으로부터 벗어 나게 하소서.”(249-250)

에라스무스는 갑작스러운 죽음을 피하고자 하는 것은 자신의 물지각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단언한다.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모든 죽음은 갑작스러운 죽음입니다.(251)

에라스무스는 이 진술을 통하여 당대의 통념을 공박하면서 동시에 반종교개혁 시대를 이끌 담론으로서 준비된 죽음의 중요성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다.

5. 나가는 말

후스또 L. 곤살레스가 지적한 것처럼 에라스무스의 개혁은 교리적인 면보다는 윤리적인 면에 있었다. 그는 프로테스탄트 신학자들처럼 옛 신학을 대체할 만한 새로운 신학을 제시하지 않았던 것이다. 에라스무스는 자신의 신념에 따라 그리스도의 단순한 가르침으로 되돌아가는 데 만족하였다.²⁷⁾

롤란드 베인턴(Roland Bainton)은 에라스무스의 후기 저작들에서 보이는 반종교개혁 지향의 태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그는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천국의 비둘기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목자 가 양떼를 눕히는 잔잔한 물가로, 그리스도의 신비로운 몸으로 묘사하였다.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구원하는 교리를 가지지 못한 이단자나 분파가 되기보다는 하잘것없는 삶이라도 교회 안에서 사는 것이 낫다. 교회는 계시의 담지자이며, 오랜 세월에 걸친 합의가 존재하는 곳이다. 이런 논조를 떤 수많은 언급들을 에라스무스의 저술들에서 뽑을 수 있기에 그를 반동 종교 개혁의 선구자라 불려도 손색이 없을 정도이다.²⁸⁾

에라스무스가 ‘죽음’에 관해 집필한 작품은 그가 종교개혁 진영과의 갈등이 거의 정리된 시점에서 출판된 것으로서, 확연히 그의 작품 초기와는 다른 색깔의 내용을 담고 있었다. 가톨릭교회 내에서 점진적인 개선을 시도했던 에라스무스의 후기 작품 속에는 인생과 죽음에 대하여 개혁주의적인 태도와 전통적인 가톨릭주의 자로서의 입장이 혼재되어 나타난다. 이것은 당시 본격적인 에라스무스주의자들

27) Justo L. González, op. cit., 37.

28) Roland H. Bainton, op. cit., 245.

이외의 광범위한 스페인 지식인들에게 영향을 끼쳤으며, 다음 세기의 시대정신인 반종교개혁주의로 이어지는 연결고리 역할을 했다. 책 제목이 단적으로 전달하는 메시지인 '죽음을 준비해야 한다'는 입장이야말로 '죽음의 순간에 영혼의 구원이 결정 난다'는 중세 교회의 사상에서 비롯된 사고이다. 에라스무스의 협세관은 그리스도교의 궁극적인 목표가 구원에 집중되고, 그 구원은 죽음의 순간에 결정 난다는 가톨릭적 패러다임 속에 머물고 있는 것이다.

'죽음을 준비하라'는 에라스무스의 주장을 곧 이어 이 장르의 작품들이 대거 쏟아지게 될 트렌토 공의회 이후의 시대의 정신과 깊이 연결되어 있었다. 물론 그의 작품에는 바로크 시대의 죽음에 대한 태도와 차원이 다른 현세에 대한 낙관주의와 이 땅에서의 삶에 대한 가치 긍정, 그리고 내적인 그리스도교에 대한 분명한 입장이 드러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은 중세 기독교의 오래된 관심 영역이었고, 16세기 말과 17세기에 강화되고 증폭될 반종교개혁의 강력한 무기였다는 점에서, 이를 본격적으로 다룬 에라스무스와 트렌토 가톨릭주의의 연결을 부인 할 수 없다.

에라스무스는 종교개혁이란 역사의 격동기를 추동한 인물 중의 한 사람으로서 구대륙을 휩쓴 종교의 폭풍, 그 한 복판에 서 있다가, 가톨릭교회의 품에서 조용히 숨을 거두었다. 로테르담의 인문주의자는 처음에는 가톨릭교회의 부패를 맹렬히 비판하였으나, 그의 신학적·교리적 뿌리는 여전히 중세교회의 전통에 뗄어있었고, 이 점이 생애 말년의 그를 반종교개혁의 선구로 자리매김하게 만든 것이다.

참고문헌

- 『공동번역 성서』(1995), 서울: 대한성서공회.
 박철(2001), 「세르반테스 연극과 에라스무스 사상」, 『외국문학연구』, 8, 201-222.
 배본철(1995), 『기독교회사』, 서울: 성지원.
 Abellán, José Luis(1982), *El erasmismo español*, Madrid: Espasa-Calpe.
 _____ (1986), *Historia crítica del pensamiento español II: la Edad de Oro*, Madrid: Espasa-Calpe.
 _____ (1988), *Historia crítica del pensamiento español: del Barroco a la Ilustración(siglos XVII y XVIII)*, Madrid: Espasa-Calpe.
 Alberigo, G.(ed.)(2006), 『보편 공의회 문헌집 제3권 -트렌토 공의회·제1차 바티칸 공의회-』(김영국, 손희송, 이경상 역), 서울: 가톨릭출판사.
 Ariès, Philippe(2000), *Historia de la muerte en Occidente: desde la Edad Media hasta nuestros días*, Barcelona: El Acantilado.
 Augustijn, Cornelis(1986), 『에라스무스: 교회와 신학의 개신자』(신원용 역), 서울:

홍성사.

- Bainton, Roland H.(1998), 『에라스무스』(박종숙 역), 서울: 현대지성사.
- Bataillon, Marcel(1991), *Erasmo y España: estudios sobre la historia espiritual del siglo XVI*, Madrid: Fondo de Cultura Económica.
- _____ (2000), *Erasmo y el erasmismo*, Barcelona: Crítica.
- Belarmino, Roberto(1881), *Arte de bien morir*, Madrid: Viuda e Hijo de Aguado.
- Conferencia Episcopal Española(ed.)(1992), *La Biblia*, Madrid: Verbo Divino.
- Elliott, John H.(2000), 『스페인 제국사(1469-1716)』(김원중 역), 서울: 까치.
- Erasmo, Desiderio(1555), *Preparación y aparejo para bien morir, compuesto por el famoso y excelente doctor Desiderio Erasmo Roterodamo*, Amberes: Martín Nucio.
- _____ (1992), *Elogio de la locura*, Barcelona: Planeta.
- _____ (1995), 『광우예찬』(정기수 역), 서울: 을유문화사.
- _____ (2000), *Preparación y aparejo para bien morir*(traducción de Bernardo Pérez de Chinchón), Madrid: Fundación Universitaria Española.
- González, Justo L.(2002), 『기독교 사상사 III』(이형기, 차종순 역), 서울: 한국장로 교출판사.
- Martínez Gil, Fernando(1993), *Muerte y sociedad en la España de los Austrias*, Madrid: Siglo XXI de España.
- Menéndez Pelayo, Marcelino(1992), *Historia de los heterodoxos españoles III*, Madrid: C.S.I.C.
- Morel d'Arleux, Antonia(1993), "Los tratados de preparación a la muerte: aproximación metodológica", *Estado actual de los estudios sobre el Siglo de Oro: actas del II Congreso Internacional de Hispanistas del Siglo de Oro*, Salamanca: Universidad de Salamanca, 719-734.
- Orozco, Alonso de(1921), *Victoria de la muerte*, Madrid: Gil Blas.
- Rico, Francisco(1980), *Historia y crítica de la literatura española 2: Renacimiento*, Barcelona: Crítica.
- Sebastián, Santiago(1989), *Contrarreforma y barroco*, Madrid: Alianza.
- Valdés, Alfonso de(1999), *Diálogo de Mercurio y Carón*, Madrid: Cátedra.
- _____ (2001), *Diálogo de las cosas acaecidas en Roma*, Madrid: Cátedra.
- Venegas, Alejo(1969), *Agoría del tránsito de la muerte con los avisos y consuelos que acerca de ella son provechosos*, Madrid: Rialp.
- Vilanova, Antonio(1989), *Erasmo y Cervantes*, Barcelona: Lumen.
- VV. AA.(2003), *Artes de bien morir: Ars moriendi de la Edad Media y del*

Siglo de Oro, Madrid: Lengua de Trapo.

Ynduráin, Domingo(1994), *Humanismo y Renacimiento en España*, Madrid:
Cátedra.

Zweig, Stefan(2006), 『에라스무스 평전』(정민영 역), 펴주: 아름미디어.

이만희

한국외국어대학교 스페인어과

서울시 노원구 중계본동 583번지 금호타운 101-915

Tel: 011-9182-0030

E-mail: abemanheelee@hanmail.net

논문접수일: 2008년 2월 28일

심사완료일: 2008년 3월 14일

개제확정일: 2008년 3월 19일